

東醫寶鑑 內傷門 方劑에 配合된 風藥의 活用に 대한 考察

전지영, 문 구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Wind Herbs(風藥) Blended with Prescriptions for Internal Disease Range in *Donguibogam*

Ji-Young Jeon, Goo Moon
Department of Oriental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exterior-relieving herbs are blended by each prescription with emphasis on Internal disease range of *Donguibogam* by limiting Wind herbs in exterior-relieving herbs to apply exterior-relieving herbs to internal diseases.

Prescriptions mixed with exterior-relieving herbs is a prescription adding *Bojungikgitang*, *Yijintang*, *Yimyosan*, *Yukilsan* and *Gilgyeongjigaktang*. The mixed exterior-relieving herbs were diversely operated according to each prescription or medicines. However, the mixed exterior-relieving herbs were mixed for rising yang & tonifying qi(升陽益氣) for the most part. The exterior-relieving herbs mixed with prescriptions had the total 15 kinds, *Bupleuri Radix*, *Cimicifugae Rhizoma* among them were mixed with prescriptions for the most part. In addition, two-kind mixed exterior-relieving herbs were utilized in order of *Bupleuri Radix* · *Cimicifugae*

-
- 교신저자 : 문구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142-1번지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 3내과
 - Tel : 063-270-1114 E-mail : gmoon@wonkwang.ac.kr
 - 접수 : 2009/ 12/ 02 1차 수정 : 2009/ 12/ 04 2차 수정 : 2009/ 12/ 09 채택 : 2009/ 12/ 14

Rhizoma and Bupleuri Radix · Cimicifugae Rhizoma · Notopterygii Rhizoma · Ledebouriellae Radix.

Taken together, Wind herbs is applied several purpose, so that it can contribute to treatment and prevention of internal diseases in present-day.

Key word : Wind herbs, internal diseases, exterior-relieving herbs, *Donguibogam*, rising yang & tonifying qi(升陽益氣), *Bupleuri Radix*, *Cimicifugae Rhizoma*

1. 서 론

風藥이라는 용어는 張元素의 <醫學啓源>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는 五運六氣學說을 약물에 귀납하여 “風升生, 熱浮長, 濕化成, 燥降收, 寒沈藏”의 다섯 종류로 나누었다. 그 중에 “風升生”에는 防風, 羌活, 獨活, 柴胡, 升麻, 川芎, 細辛, 藁本, 蔓荊子, 薄荷, 麻黃, 荊芥 등 20여 종류의 약물을 포함시켰다¹⁾.

李東垣은 張元素의 학술 사상을 계승하여 여러 종류의 內傷疾患에 風藥을 활용하였다. 李東垣의 대표적 이론인 陰火論에서 그는 飲食失節, 勞倦傷, 七情所傷 등의 원인에 의해 脾胃가 손상되고 인체의 氣機升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陰火가 발생한다고 보았고²⁾ <內外傷辨惑論>, <脾胃論>, <蘭室秘藏> 등의 저서에서 陰火의 치료에 甘溫補脾, 風藥升陽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寒涼瀉火藥을 보조적으로 응용하였다. 虛證에는 甘溫除熱法을 위주로 하고, 實證에는 몸의 上部와 外部에서 陰火를 發散하도록 하는 升陽散火法에, 몸의 下部와 內部에서 陰火를 泄하도록 하는 苦寒瀉火法을 응용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用藥에서 그는 補脾胃藥에 升陽風藥을 佐藥으로 하거나, 補脾胃藥과 升陽風藥이 相須作用을 하도록 하였다³⁾.

또한, <脾胃論·脾胃勝衰論>에서 脾胃虛弱으로

陽氣를 生하지 못할 때 風藥을 써서 助陽한다고 하였는데²⁾, 升陽之劑가 助陽하고 補氣하는 작용이 단순한 補氣劑보다 좋다고 보았으며, 小建中湯의 加減法 중에 “如氣弱氣短者, 加人蔘, 只升陽之制助陽, 尤勝加人蔘”이라고 하여 이를 뒷받침 하였다⁴⁾.

李東垣은 脾의 “清氣”, “清陽”과 肝膽의 升發之氣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脾胃의 升清降濁機能의 정상 여부는 膽의 疏達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아 肝鬱로 인한 脾胃損傷에 風藥을 加한다고 주장하였다¹⁾. 즉 東垣은 風藥이 <傷寒論>에서 말한 解表發散 뿐만 아니라 升陽舉陷과 疏肝, 散火 등의 작용도 있음을 밝혔다.

李東垣의 영향을 받은 후대 의가들 또한 內傷疾患에 風藥을 활용하였는데 그 중 柯琴은 “胃中清氣下陷은 升麻 柴胡를 사용해야한다. 氣가 輕하고 味가 薄한 것은 胃氣를 끌고 상승하여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니, 곧 升浮하여 生長의 命을 行하는 것이다. 補中之劑는 發表시키는 藥을 얻으면 中焦가 스스로 안정되고, 益氣之劑가 清氣시키는 藥에 의지하면 氣가 더욱 배가된다. 이는 用藥에 相須의 妙가 있는 것이다.”²⁾라고 하였다. 李士材는 <醫宗必讀·四大家論>에서 “東垣은 扶脾補氣를 爲主로 하였는데, 氣는 陽이고, 上升을 주관한다. 虛하면 多下陷하므로 補氣藥에 升麻 柴胡등을 加해 升舉시키니 春夏之升을 취한 것이다.”라고 하여 이들은 補中之劑에 風藥을 配合해야 비로소 升陽

益氣 할 수 있음을 밝혔다⁴⁾.

이에 저자는 李東垣과 후대 의가들이 風藥을 여러 가지 용도로 內傷病 處方에 함께 配合한 사실에 착안하여 현대인의 內傷 질환에 이를 응용해 보고자 東醫寶鑑 內傷門에 기재된 處方 중 風藥이 配合된 處方을 조사하여 각각의 處方에 配合된 風藥의 의미와 역할에 관하여 考察해 본 결과 몇 가지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연구자료선정 및 연구 방법

1. 연구자료선정

1) 문헌 선택에 있어 朝鮮王朝 光海君 5年(1613년, 癸丑) 陰曆 11월에 內醫院 御醫 許浚에 의해 당시까지의 諸般 醫書 86種을 綜合하여 著述된⁵⁾, 한의학을 대표하는 書籍인 東醫寶鑑을 연구자료로 선정하였다. 또한 東醫寶鑑의 여러 病症門 중에서 內傷疾患과 가장 연관성이 높다고 사료되는 內傷門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風藥은 처음 쓰인 張元素의 <醫學啓源>에서도 그 범위가 정확히 記載되어 있지 않아 本草學의인 分類에 따라 發散의 의미를 지닌 解表藥으로 범위를 限定하였다.

2. 연구 방법

1) 風藥이 配合된 方劑 內에서 風藥이 配合된

의미와 역할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方劑의 처방구성 및 基本方들을 調査, 分析하였으며, 각 方劑마다 配合된 風藥의 종류를 調査, 分析하였다. 본 논문에서 基本方이라 함은 한의학적 개념이 포함된 최소단위의 處方으로 한정하였다.

2) 위에서 언급한 결과를 토대로 각각의 處方에 配合된 風藥의 의미와 역할에 대하여 分析하였다.

3) 方劑에 配合된 風藥 중 각 종류별로 활용도 및 風藥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하여 風藥 종류별로 配合된 빈도수에 대하여 調査, 分析하였다.

4) 風藥이 配合된 方劑 중 2가지 이상의 風藥이 함께 配合된 의미와 역할을 파악하기 위하여 風藥의 종류별 배합에 관하여 調査, 分析하였다.

III. 본 론

1. 風藥이 配合된 方劑의 處方構成 및 配合된 風藥에 관한 調査

風藥이 配合된 方劑 內에서 風藥이 配合된 의미와 역할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方劑를 病症別로 區分하고, 風藥이 配合된 方劑 각각의 처방구성 및 基本方들을 調査하였으며, 각 方劑마다 配合된 風藥의 종류를 調査하였다. 본 논문에서 基本方이라 함은 한의학적 개념이 포함된 최소단위의 處方으로 한정하였다.

Table 1. 風藥이 配合된 方劑의 處方構成 및 配合된 風藥에 관한 調査

病 症	處 方	處方構成	基本方
食傷補益之劑	補中益氣湯	黃芪 6g, 人蔘, 白朮, 甘草 4g, 當歸, 陳皮 2g, 升麻, 柴胡 1.2g	
辨內外傷證			
勞倦傷治法			
食後昏困			
內傷病始爲熱中終爲寒中			
	補中益氣湯加味	黃芪 6g, 人蔘, 甘草 4g, 當歸, 陳皮 2g, 升麻, 柴胡	補中益氣湯

酒病治法		1.2g, 加 半夏, 白芍藥, 黃芩, 黃柏, 葛根, 川芎	
辨內外傷證	陶氏補中益氣湯	人蔘, 生地黃, 黃芪, 當歸, 川芎, 柴胡, 陳皮, 羌活, 白朮, 防風, 2.8g, 細辛, 甘草 2g	補中益氣湯 ⁽⁶⁾
辨內外傷證	加味益氣湯	羌活 6g, 人蔘, 黃芪, 防風, 柴胡 4g, 白朮, 陳皮, 當歸 2.8g, 甘草 2g, 升麻, 黃柏(酒炒) 0.8g	補中益氣湯 ⁽⁶⁾
勞倦傷治法	益胃升陽湯	白朮 6g, 黃芪 4g, 人蔘, 神麴(炒) 3g, 當歸, 陳皮, 甘草(灸) 2g, 升麻, 柴胡 1.2g, 生黃芩 0.8g	補中益氣湯 ⁽⁶⁾
內傷脾胃則不思食不嗜食			
內傷病始爲熱中終爲寒中			
勞倦傷治法	升陽順氣湯	黃芪 8g, 半夏 4.8g, 草豆蔻 3.2g, 神麴, 當歸, 陳皮, 人蔘 2.4g, 升麻, 柴胡, 甘草 1.6g, 黃柏 1.2g	補中益氣湯
勞倦傷治法	調中益氣湯	黃芪 8g, 人蔘, 蒼朮, 甘草 4g, 陳皮, 升麻, 柴胡 1.6g, 木香 0.8g	補中益氣湯 ⁽⁶⁾
勞倦傷治法	黃芪人蔘湯	黃芪 6g, 人蔘, 白朮, 甘草 4g, 當歸, 陳皮 2g, 升麻, 柴胡 1.2g, 蒼朮 4g, 神麴 2g, 黃柏 1.2g, 五味子 15粒	補中益氣湯 二妙散 ⁽⁶⁾
食後昏困	參朮湯 (參芪湯)	黃芪 8g, 蒼朮 4g, 神麴 2.8g, 人蔘, 陳皮, 青皮, 甘草 2g, 升麻, 柴胡, 黃柏, 當歸 1.2g	補中益氣湯 二妙散 ⁽⁶⁾
勞倦傷治法	清神益氣湯	人蔘 4g, 生薑 3.2g, 澤瀉, 蒼朮, 防風, 五味子 2.4g, 赤茯苓, 升麻, 白朮, 白芍藥, 生甘草, 麥門冬 1.6g, 黃柏 0.8g, 青皮 0.8g	二妙散 生脈散 ⁽⁶⁾
食傷消導之劑	木香化滯湯	半夏 6g, 草豆蔻, 甘草 4g, 柴胡 2.8g, 陳皮, 乾生薑, 木香 2.4g, 當歸尾, 枳實 1.6g, 酒紅花 0.4g	二陳湯
不伏水土病與內傷同	藿香正氣散	藿香 6g, 紫蘇葉 4g, 白芷, 大服皮, 白茯苓, 厚朴, 白朮, 陳皮, 半夏(法製), 桔梗, 甘草(灸) 2g	平胃散 回生散 二陳湯 ⁽⁶⁾
勞倦傷治法	升陽益胃湯	黃芪 8g, 人蔘, 半夏, 甘草 4g, 羌活, 獨活, 防風, 白芍藥 2.8g, 陳皮 2g, 柴胡, 白朮, 白茯苓, 澤瀉 1.2g, 黃連 0.8g	四君子湯 ⁽⁶⁾ 二陳湯
醒酒令不醉	三豆解醒湯	葛根 8g, 蒼朮 6g, 陳皮, 赤茯苓, 木瓜, 半夏 4g, 神麴 2.8g, 澤瀉 2g, 乾生薑 1.2g, 黑豆, 菘豆, 赤小豆 8g	二陳湯
辨內外傷證	參蘇飲	人蔘, 紫蘇葉, 前胡, 半夏, 乾葛, 赤茯苓 4g, 陳皮, 桔梗, 枳殼, 甘草 3g	二陳湯 桔梗枳殼湯 ⁽⁶⁾
辨內外傷證	十味和解放	白朮 16g, 桔梗 8g, 當歸, 陳皮, 枳殼, 防風, 白芍藥, 厚朴, 人蔘, 甘草 2g	桔梗枳殼湯 ⁽⁶⁾
酒病治法	防風通聖散加味	滑石 6.8g, 甘草 4.8g, 石膏, 黃芩, 桔梗 2.8g, 防風, 川芎, 當歸, 赤芍藥, 大黃, 麻黃, 薄荷, 連翹, 芒硝 1.8g, 荊芥, 白朮 梔子 1.4g 加 黃連 8g, 蔥白 10根	六一散 黃連解毒湯 三黃瀉心湯 白虎湯 調胃承氣湯 涼膈散 回春涼膈散 四物湯 ⁽⁶⁾

酒病治法	解酒化毒散	滑石 160g, 葛根 50g, 甘草 30g	六一散 ⁶⁾
酒病治法	升麻葛根湯	葛根 8g, 白芍藥, 升麻, 甘草 4g	
酒病治法	五豆湯	乾葛, 甘草 600g, 貫衆 300g, 黑豆, 黃豆, 菉豆, 青豆, 赤小豆 40g	
醒酒令不醉	萬盃不醉丹	葛根 160g, 白果芽 40g, 細芽茶 160g, 菉豆花 160g, 葛花 40g, 陳皮 160g, 菊花藥 160g, 豌豆花 20g, 眞牛黃 4g, 青鹽 160g	
醒酒令不醉	神仙不醉丹	葛花, 葛根, 白茯苓, 小豆花, 木香, 天門冬, 縮砂, 牡丹皮, 人蔘, 官桂, 枸杞子, 陳皮, 澤瀉, 白鹽, 甘草 各 等分	
醒酒令不醉	醉鄉寶屑	葛根, 白豆蔻, 縮砂, 丁香 20g, 百藥煎, 甘草 10g, 木瓜 160g, 炒鹽 40g	
辨內外傷證	九味羌活湯	羌活, 防風 6g, 蒼朮, 川芎, 白芷, 黃芩, 生地黃 4.8g, 細辛, 甘草 2g	
食後昏困	升陽補氣湯	柴胡 6g, 生地黃 4g, 升麻, 澤瀉, 白芍藥, 防風, 羌活, 獨活, 甘草 2.8g, 厚朴 2g	
內傷病始爲熱中終爲寒中	神聖復氣湯	黃柏, 黃連, 生地黃(酒洗), 枳殼 1.2g, 細辛, 川芎, 蔓荊子 0.8g, 羌活, 柴胡 4g, 藁本, 甘草 3.2g, 半夏, 升麻 2.8g, 當歸 2.4g, 防風, 人蔘, 郁李仁 2g, 乾薑(炮), 附子(炮) 1.2g, 白葵花 3朵	
食傷消導之劑	二黃丸	黃芩 80g, 黃連 40g, 升麻, 柴胡 12g, 枳實 20g, 甘草 8g	
食傷治法	木香見睨丸	荊三稜, 神麴 40g, 石三稜, 草豆蔻 20g, 升麻, 柴胡 12g, 木香 8g, 巴豆霜 2g	
食傷消導之劑			
內傷飲食宜下			

2. 각 方劑別 風藥이 配合된 의미와 역할에 대한 調査
 東醫寶鑑 內傷門에 收錄된 方劑 중 風藥이 配合된 총 28개 方劑에 風藥이 配合된 의미와 역할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 1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각각의 方劑別로 調査, 分析하였다.

Table 2. 각 方劑別 風藥이 配合된 의미와 역할에 대한 調査

風藥의 역할	處方	配合된 風藥	根 據
升陽益氣	補中益氣湯	升麻, 柴胡	基本方
	補中益氣湯加味	升麻, 柴胡, 葛根	基本方: 補中益氣湯
	陶氏補中益氣湯	柴胡, 羌活, 防風, 細辛	基本方: 補中益氣湯
	加味益氣湯	羌活, 防風, 柴胡, 升麻	基本方: 補中益氣湯
	益胃升陽湯	升麻, 柴胡	基本方: 補中益氣湯
	升陽順氣湯	升麻, 柴胡	基本方: 補中益氣湯
	調中益氣湯	升麻, 柴胡	基本方: 補中益氣湯
	升陽益胃湯	羌活, 防風, 柴胡	病症: 中氣不足

			主治: 內傷脾胃
	黃芪人蔘湯	升麻, 柴胡	基本方: 補中益氣湯, 二妙散
	參朮湯(參芪湯)	升麻, 柴胡	基本方: 補中益氣湯, 二妙散 病理: 脾胃虛弱 元氣不能榮於心肺
	升陽補氣湯	柴胡, 升麻, 防風, 羌活	病理: 飲食失時 飢飽勞役 胃氣不足
	神聖復氣湯	細辛, 蔓荊子, 羌活, 柴胡, 藁本, 升麻, 防風	病理: 腎元與膀胱經中 陽氣不足
	清神益氣湯	生薑, 防風, 升麻	病理: 脾胃虛損
發散	陶氏補中益氣湯	柴胡, 羌活, 防風, 細辛	病理: 內傷氣血 外感風寒
	加味益氣湯	羌活, 防風, 柴胡, 升麻	病理: 勞復 主治: 勞力感寒證
	神聖復氣湯	細辛, 蔓荊子, 羌活, 柴胡, 藁本, 升麻, 防風	主治: 大惡風寒
	防風通聖散加味	防風, 麻黃, 薄荷, 荊芥, 蔥白	病理: 酒後傷風 主治: 身熱 頭痛如破
	十味和解放	防風	病理: 外感內傷
	蔘蘇飲	紫蘇葉, 乾葛	病理: 感傷風寒 及內因七情 病症: 若顯外證多者 則是外感重而內傷輕 宜以發散爲急
	九味羌活湯	羌活, 防風, 白芷, 細辛	病症: 若顯外證多者 則是外感重而內傷輕 宜以發散爲急
	藿香正氣散	紫蘇葉, 白芷	病理: 傷寒陰證
解酒毒	補中益氣湯加味	升麻, 柴胡, 葛根	病症: 酒病治法
	五豆湯	乾葛	病理: 酒毒
	解酒化毒散	葛根	病理: 傷酒
	升麻葛根湯	葛根, 升麻	病理: 傷酒
	萬盃不醉丹	葛根	病症: 醒酒令不醉
	神仙不醉丹	葛根	病症: 醒酒令不醉
	醉鄉寶屑	葛根	病症: 醒酒令不醉
	三豆解醒湯	葛根	病理: 中酒發病
清暑濕熱	黃芪人蔘湯	升麻, 柴胡	基本方: 補中益氣湯, 二妙散 病理: 熱傷肺氣
	清神益氣湯	生薑, 防風, 升麻	主治: 食少 倦怠 適當暑雨濕熱之盛 目疾時作 身面俱黃 基本方: 二妙散, 生脈散
	解酒化毒散	葛根	主治: 發熱煩渴 尿赤澀 基本方: 六一散
	防風通聖散加味	防風, 麻黃, 薄荷, 荊芥, 蔥白	主治: 身熱 頭痛如破 基本方: 六一散
疏肝	木香化滯湯	柴胡	病理: 因憂食麪
	升陽順氣湯	升麻, 柴胡	病理: 忿怒傷肝 思慮傷脾 悲哀傷肺 各經火

散火	二黃丸	升麻, 柴胡	動 有傷元氣 病理: 傷熱食
	升陽順氣湯	升麻, 柴胡	病理: 忿怒傷肝 思慮傷脾 悲哀傷肺 各經火動 有傷元氣
發表透疹	升麻葛根湯	葛根, 升麻	主治: 膈熱口瘡咽痛
理氣化痰	蔘蘇飲	紫蘇葉, 乾葛	基本方: 二陳湯, 桔梗枳殼湯
反佐	木香見睨丸	升麻, 柴胡	病理: 傷生冷食

3. 風藥의 종류별 配合된 빈도수 및 역할에 대한 調査
 方劑에 配合된 風藥의 종류별 활용도 및 風藥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하여 風藥이 配合된 方劑를

病症別로 區分하고, 위 2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風藥의 종류별로 配合된 빈도수와 역할에 대하여 調査, 分析하였다.

Table 3. 風藥의 종류별 配合된 빈도수 및 역할에 대한 調査

風藥	빈도수	백분율	역할	處方	病症
柴胡	23	28	升陽益氣	補中益氣湯	食傷補益之劑
					辨內外傷證
					勞倦傷治法
					食後昏困
				內傷病始爲熱中終爲寒中	
				益胃升陽湯	勞倦傷治法
					內傷脾胃則不思食不嗜食
					內傷病始爲熱中終爲寒中
			調中益氣湯		
			升陽益氣湯	勞倦傷治法	
				升陽益胃湯	
			升陽補氣湯	食後昏困	
				補中益氣湯加味	酒病治法
			升陽益氣發散	加味益氣湯	辨內外傷證
				陶氏補中益氣湯	
				神聖復氣湯	內傷病始爲熱中終爲寒中
升陽益氣清暑濕熱	黃芪人蔘湯	勞倦傷治法			
	參朮湯(參芪湯)	食後昏困			
升陽益氣疏肝散火	升陽順氣湯	勞倦傷治法			
			疏肝		
散火	木香化滯湯	食傷消導之劑			
	二黃丸				
反佐	木香見睨丸	食傷治法			

					食傷消導之劑
					內傷飲食宜下
升 麻	22	27	升陽益氣	補中益氣湯	食傷補益之劑
					辨內外傷證
					勞倦傷治法
					食後昏困
					內傷病始爲熱中終爲寒中
			益胃升陽湯	勞倦傷治法	
				內傷脾胃則不思食不嗜食	
				內傷病始爲熱中終爲寒中	
			調中益氣湯	勞倦傷治法	
			升陽補氣湯	食後昏困	
		補中益氣湯加味	酒病治法		
		升陽益氣 清暑濕熱	清神益氣湯	勞倦傷治法	
			黃芪人蔘湯		
			參朮湯(參芪湯)	食後昏困	
		升陽益氣 發散	加味益氣湯	辨內外傷證	
			神聖復氣湯	內傷病始爲熱中終爲寒中	
		升陽益氣 疏肝 散火	升陽順氣湯	勞倦傷治法	
解酒毒 發表透疹 散火	升麻葛根湯	酒病治法			
反佐	二黃丸	食傷消導之劑			
	木香見睨丸	食傷治法			
		食傷消導之劑			
		內傷飲食宜下			
防 風	9	11	升陽益氣	升陽益胃湯	勞倦傷治法
				升陽補氣湯	食後昏困
			升陽益氣 發散	陶氏補中益氣湯	辨內外傷證
				加味益氣湯	
		升陽益氣 清暑濕熱	神聖復氣湯	內傷病始爲熱中終爲寒中	
			清神益氣湯	勞倦傷治法	
發散 清暑濕熱	防風通聖散加味	酒病治法			
發散	十味和解散	辨內外傷證			
	九味羌活湯				
葛 根	9	11	解酒毒	補中益氣湯加味	酒病治法
				五豆湯	

				萬盃不醉丹 神仙不醉丹 醉鄉寶屑 三豆解醒湯	醒酒令不醉
			解酒毒 清暑濕熱	解酒化毒散	酒病治法
			解酒毒 發表透疹	升麻葛根湯	
			發散 理氣化痰	蔘蘇飲	
羌 活	6	7	升陽益氣	升陽益胃湯 升陽補氣湯	勞倦傷治法 食後昏困
			升陽益氣 發散	陶氏補中益氣湯 加味益氣湯	辨內外傷證
				神聖復氣湯	內傷病始爲熱中終爲寒中
			發散	九味羌活湯	辨內外傷證
細 辛	3	4	升陽益氣 發散	陶氏補中益氣湯 神聖復氣湯	辨內外傷證 內傷病始爲熱中終爲寒中
			發散	九味羌活湯	辨內外傷證
			發散	藿香正氣散	不伏水土病與內傷同
紫蘇葉	2	2	發散	蔘蘇飲	辨內外傷證
			發散 理氣化痰	藿香正氣散	不伏水土病與內傷同
白 芷	2	2	發散	九味羌活湯	辨內外傷證
				藿香正氣散	不伏水土病與內傷同
麻 黃	1	1	發散 清暑濕熱	防風通聖散加味	酒病治法
薄 荷	1	1	發散 清暑濕熱	防風通聖散加味	酒病治法
蔥 白	1	1	發散 清暑濕熱	防風通聖散加味	酒病治法
荊 芥	1	1	發散 清暑濕熱	防風通聖散加味	酒病治法
蔓荊子	1	1	升陽益氣 發散	神聖復氣湯	內傷病始爲熱中終爲寒中
藁 本	1	1	升陽益氣 發散	神聖復氣湯	內傷病始爲熱中終爲寒中
生 薑	1	1	升陽益氣 清暑濕熱	清神益氣湯	勞倦傷治法
총 계	83	100%			

4. 風藥의 종류별 配合에 관한 調査

風藥이 配合된 方劑 중 2가지 이상의 風藥이 함께 配合된 의미와 역할을 파악하기 위하여 風藥

이 配合된 方劑 중 風藥의 종류별 배합에 관하여 調査, 分析하였다.

Table 4. 風藥의 종류별 配合에 관한 調査

風藥의 配合	빈도수	백분율	處 方
升麻, 柴胡	8	40	木香見睨丸
			二黃丸
			補中益氣湯
			益胃升陽湯
			升陽順氣湯
			調中益氣湯
			黃芪人蔘湯
			參朮湯(參芪湯)
升麻, 柴胡, 羌活, 防風	2	10	加味益氣湯
			升陽補氣湯
升麻, 柴胡, 葛根	1	5	補中益氣湯加味
升麻, 柴胡, 羌活, 防風, 細辛, 藁本, 蔓荊子	1	5	神聖復氣湯
羌活, 防風, 柴胡	1	5	升陽益胃湯
羌活, 防風, 柴胡, 細辛	1	5	陶氏補中益氣湯
羌活, 防風, 白芷, 細辛	1	5	九味羌活湯
升麻, 葛根	1	5	升麻葛根湯
升麻, 防風, 生薑	1	5	清神益氣湯
紫蘇葉, 白芷	1	5	藿香正氣散
紫蘇葉, 葛根	1	5	參蘇飲
荊芥, 防風, 麻黃, 薄荷, 蔥白	1	5	防風通聖散加味
총 계	20	100%	

IV. 고 찰

1. 風藥이 配合된 方劑의 處方構成 및 配合된 風藥에 관한 조사

風藥이 配合된 方劑 內에서 風藥이 配合된 의미와 하는 역할을 파악하기 위하여 風藥이 配合된 方劑의 處方構成 및 配合된 風藥을 조사하였다 (Table 1).

風藥이 配合된 方劑 총 28개 處方 중 補中益氣湯, 補中益氣湯加味, 陶氏補中益氣湯, 加味益氣湯, 益胃升陽湯, 升陽順氣湯, 調中益氣湯, 黃芪人蔘湯, 參朮湯 등 9개의 處方에서는 補中益氣湯(黃芪, 人蔘, 白朮, 甘草, 當歸, 陳皮, 升麻, 柴胡)을 基本方으로 하고 여기에 升麻, 柴胡, 葛根, 羌活, 防風, 細辛 등의 風藥을 配合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木香化滯湯, 三豆解醒湯, 參蘇飲, 升陽

益胃湯, 藿香正氣散 등 5개의 處方에서 化痰之劑의 基本方인 二陳湯(半夏, 陳皮, 茯苓, 生薑)을 위주로 處方에 柴胡, 葛根, 羌活, 防風, 紫蘇葉, 白芷 등의 風藥을 配合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清神益氣湯, 黃芪人蔘湯, 參朮湯 등 3개의 處方에서 清熱燥濕의 基本方인 二妙散(蒼朮, 黃柏)을 위주로 處方에 升麻, 柴胡, 生薑, 防風 등의 風藥을 配合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防風通聖散加味, 解酒化毒散 2개의 處方에서 清暑利濕의 基本方인 六一散(滑石, 甘草)을 위주로 處方에 葛根, 荊芥, 防風, 麻黃, 薄荷, 蔥白 등의 風藥을 配合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十味和解放과 參蘇飲 2개의 處方에서 胸部 및 心下部 理氣化痰의 基本方인 桔梗枳殼湯(桔梗, 枳殼, 甘草, 生薑)을 위주로 處方에 葛根, 防風, 紫蘇葉 등의 風藥을 配合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 升麻葛根湯, 五豆湯, 萬盃不醉丹, 神仙不醉丹, 醉鄉寶屑, 九味羌活湯, 升陽補氣湯, 神聖復氣湯, 二黃丸, 木香見睨丸 등 총 10개의 處方에서는 升麻, 柴胡, 葛根, 羌活, 防風, 細辛, 白芷, 蔓荊子, 藁本 등의 風藥을 配合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風藥이 配合된 方劑 內에서 風藥이 配合된 의미와 하는 역할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方劑의 처방구성 및 配合된 風藥을 調査한 결과 補中益氣湯, 二陳湯, 二妙散, 六一散, 桔梗枳殼湯 등의 基本方에 柴胡, 升麻, 防風, 葛根, 羌活, 細辛, 紫蘇葉, 白芷, 麻黃, 生薑, 薄荷, 荊芥, 蔓荊子, 藁本, 蔥白 등 총 15종류의 風藥이 配合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⁶⁾.

2. 각 方劑別 風藥이 配合된 의미와 역할에 대한 調査

Table 1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東醫寶鑑 內傷門에 收錄된 方劑 중 風藥이 配合된 총 28개의 處方에서 風藥이 配合된 의미와 역할을 각각의 方劑別로 調査, 分析하면 Table 2와 같다.

먼저 補中益氣湯은 東垣十書 중 〈脾胃論〉의 處方으로 調補脾胃 升陽益氣의 效를 가지고 있어 脾胃氣虛로 인한 身熱自汗, 渴喜熱飲, 頭痛, 惡寒, 少氣, 懶言, 飲食無味, 四肢乏力, 舌嫩色淡, 脈虛大, 或 氣虛下陷으로 인한 脫肛, 子宮脫垂久痢, 或 久虐等症에 광범위하게 活用되고 있다⁷⁾. 處方을 구성하는 약재 중 人蔘, 甘草는 補脾益氣 和中瀉火하고, 黃芪는 補肺固表, 白朮은 燥濕健脾, 當歸는 和血養陰, 陳皮는 理氣和中하며, 升麻는 陽明 清氣를 升하고 柴胡는 少陽清氣를 升하는 작용을 한다⁸⁾. 그러므로 脾胃虛弱으로 인한 食傷, 勞倦傷 등의 內傷疾患에 응용 가능하며 柴胡와 升麻는 升陽益氣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本 處方에 配合된 風藥은 升麻, 柴胡로 補中益氣湯은 東醫寶鑑에서 “食傷補益之劑, 辨內外傷證, 勞倦傷治法, 食後昏困, 內傷病始爲熱中終爲寒中”의 총 5개 病症에 활용되었으며 그 病理가 “勞役太甚 或飲食失節”이고 主治는 “身熱而煩 自汗倦怠”이다. 따라서 補中益氣湯에서 升麻, 柴胡는 升陽益氣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補中益氣湯加味는 補中益氣湯에서 白朮을 去하고 半夏, 白芍藥, 黃芩, 黃柏, 葛根, 川芎등을 加味한 處方으로 東醫寶鑑에서 “酒病治法”의 病症에 활용되었고 그 主治는 “中酒頭痛, 嘔吐眩暈”이다. 補中益氣湯에서 升麻, 柴胡의 升陽益氣 작용에 더하여 解酒毒하는 작용을 얻기 위하여 葛根을 加味한 것으로 생각된다.

陶氏補中益氣湯은 補中益氣湯에서 升麻를 去하는 대신 清熱和陰할 수 있는 生地黃, 川芎과 羌活, 防風, 細辛을 加味한 處方으로 羌活, 防風은 祛風止痛하고 細辛, 川芎은 頭痛을 그치게 하여 內傷과 外感을 兼治할 수 있다⁶⁾. 本 處方에 配合된 風藥은 柴胡, 羌活, 防風, 細辛 등으로 本 處方은 東

醫寶鑑에서 “辨內外傷證”의病症에 활용되었고 그病理는 “內傷氣血 外感風寒”이며 主治는 “頭痛身熱 惡寒自汗 沈困無力”이다. 補中益氣湯을 위주로 加味한 處方이므로 配合된 風藥이 升陽益氣의 作用을 한다고 생각되며 內傷兼外感의 病理와 風藥이 대량 配合되고 그 종류도 다양한 점으로 미루어 外感邪氣를 發散시키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加味益氣湯에 配合된 風藥은 羌活, 防風, 柴胡, 升麻 등으로 本 處方은 東醫寶鑑에서 辨內外傷證”의病症에 활용되었고 그 病理는 “勞復”이며 主治는 “治勞力感寒證”이다. 補中益氣湯이 基本方이므로 配合된 風藥이 升陽益氣의 作用을 한다고 생각되며 “內傷兼外感”의 病理에 활용되었다는 점과 風藥이 君藥이나 臣藥으로 대량 配合되고 그 종류도 다양한 점으로 미루어 外感邪氣를 發散시키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益胃升陽湯에 配合된 風藥은 升麻, 柴胡 등으로 本 處方은 東醫寶鑑에서 “勞倦傷治法, 內傷脾胃則不思食不嗜食, 內傷病始爲熱中終爲寒中”등 총 3개의病症에 활용되었으며 그 主治는 “治內傷諸證. 蓋血脫益氣 古聖人之法也 先理胃氣以助生發之氣 此藥主之”이다. 補中益氣湯을 基本方으로 한 處方이므로 配合된 風藥이 升陽益氣의 作用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升陽順氣湯에 配合된 風藥은 升麻, 柴胡 등으로 本 處方은 東醫寶鑑에서 “勞倦傷治法”의病症에 활용되었으며 그 病理는 “忿怒傷肝 思慮傷脾 悲哀傷肺 各經火動 有傷元氣”이고 主治는 “治內傷諸證. 春月口淡無味, 夏月雖熱猶寒. 胸腹滿悶 飢常如胞”이다. 補中益氣湯을 基本方으로 한 處方이므로 配合된 風藥이 升陽益氣의 作用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病理를 통해서 疏肝解鬱과 散火작용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調中益氣湯에 配合된 風藥은 升麻, 柴胡 등으로 本 處方은 東醫寶鑑에서 “勞倦傷治法”의病症에 활용되었으며 그 主治는 “治內傷證. 或大便穢泄

時見白膿”이다. 補中益氣湯을 基本方으로 한 處方이고 風藥이 소량 配合된 것으로 미루어 升陽益氣의 作用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升陽益氣湯에 配合된 風藥은 羌活, 防風, 柴胡 등으로 本 處方은 東醫寶鑑에서 “勞倦傷治法”중에서도 “飲食失時 勞役過度 脾胃虛弱 中氣不足”의病症에 활용되었으며 그 主治는 “治內傷脾胃證. 秋燥濕熱少退 而飲食無味 體重口燥 大小便不調 或洒淅惡寒 乃陽氣不伸故也”이다. 四君子湯과 二陳湯을 基本方으로 한 處方으로 東醫寶鑑 중 “中氣不足”의病症에 활용된 점과 “內傷脾胃”의 主治로 미루어 配合된 風藥은 補中益氣湯에서와 유사하게 升陽益氣의 作用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黃芪人蔘湯에 配合된 風藥은 升麻, 柴胡 등으로 本 處方은 東醫寶鑑에서 “勞倦傷治法”의病症에 활용되었으며 그 主治는 “治暑月精神不足 兩脚痿軟 煩熱嘔噦 自汗頭痛 皆熱傷肺氣也.”이다. 黃芪人蔘湯은 補中益氣湯과 二妙散을 基本方으로 한 處方이며 그 病理가 “熱傷肺氣”이므로 配合된 升麻와 柴胡는 升陽益氣 作用과 함께 清暑濕熱의 作用을 보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參朮湯(參芪湯)에 配合된 風藥은 升麻, 柴胡 등으로 本 處方은 東醫寶鑑에서 “食後昏困”의病症에 활용되었고 病理는 “脾胃虛弱 元氣不能榮於心肺”이며 主治는 “四肢沈重 食後昏悶沈困.”이다. 參朮湯(參芪湯)은 補中益氣湯과 二妙散을 基本方으로 한 處方이므로 配合된 升麻와 柴胡는 升陽益氣 作用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升陽補氣湯에 配合된 風藥은 柴胡, 升麻, 防風, 羌活 등으로 本 處方은 東醫寶鑑에서 “食後昏困”의病症에 활용되었으며 그 主治는 “治飲食失時 飢飽勞役 胃氣不足 氣短無力 四肢怠惰 早飯後昏悶 要須眠睡 五心煩熱”이다. 그 病理가 “飲食失時 飢飽勞役 胃氣不足”이므로 配合된 升麻와 柴胡, 防風, 羌活은 升陽益氣의 作用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神聖復氣湯에 配合된 風藥은 細辛, 蔓荊子, 羌

活, 柴胡, 藁本, 升麻, 防風 등으로 本 處方은 東醫寶鑑에서 “傷病始爲熱中終爲寒中”의 病症에 활용되었으며 그 主治는 “治腎元與膀胱經中 陽氣不足致胸脇膈腹 牽引冷痛 大惡風寒 或上熱如火 下寒如水等證.”이다. 그 病理가 “腎元與膀胱經中 陽氣不足”이므로 配合된 細辛, 蔓荊子, 羌活, 柴胡, 藁本, 升麻, 防風은 升陽益氣의 作用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處方 內에서 配合된 風藥의 用量이 많고 또 종류도 다양하며 主治에서 “大惡風寒”이라 하였으므로 發散의 作用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清神益氣湯에 配合된 風藥은 生薑, 防風, 升麻 등으로 本 處方은 東醫寶鑑에서 “勞倦傷治法”의 病症에 활용되었고 그 病理는 “脾胃虛損”이며 主治는 “食少 倦怠 適當暑雨濕熱之盛 目疾時作 身面俱黃”이다. 또한 二妙散과 生脈散을 基本方으로 한 處方이므로 配合된 風藥은 升陽益氣의 作用과 함께 清暑濕熱의 作用을 보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防風通聖散加味の 基本방인 防風通聖散은 六一散, 黃連解毒湯, 三黃瀉心湯, 白虎湯, 調胃承氣湯, 涼膈散, 回春涼膈散, 四物湯이 合方되어 陰陽表裏를 通治하는 方劑로 表寒裏熱의 實證에 쓰는 方劑이다⁹⁾. 六一散의 去濕熱, 解酒食邪毒하는 作用과 黃連解毒湯, 三黃瀉心湯의 三焦實火를 瀉하는 作用, 白虎湯, 調胃承氣湯의 瀉下通便, 清熱, 蕩滌腸胃 作用, 涼膈散, 回春涼膈散의 清上瀉下作用, 四物湯의 潤燥 涼血 作用, 荊芥, 防風, 麻黃의 發散, 祛風, 清熱作用, 甘草의 調和諸藥과 寒涼之劑에 대한 緩和作用, 白朮, 生薑의 健脾, 溫脾作用 등이 함축된 方劑로써 風濕熱火燥 등의 病因으로 인한 諸般 諸症에 활용할 수 있다⁶⁾. 防風通聖散加味는 防風通聖散에 黃連과 蔥白을 加味한 處方으로 本 處方에 配合된 風藥은 防風, 麻黃, 薄荷, 荊芥, 蔥白 등이며 本 處方은 東醫寶鑑에서 “酒病治法”의 病症에 활용되었다. 그 病理는 “酒後傷風”이고 主治는 “身熱 頭痛如破”이며 清暑利濕의 基本方인

六一散을 基本方으로 한 處方이므로 配合된 風藥은 發散하는 作用과 함께 清暑濕熱 作用을 보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十味和解放에 配合된 風藥은 防風으로 本 處方은 東醫寶鑑에서 “辨內外傷證”의 “若顯內證多者 則是內傷重而外感輕 當以補養爲先” 病症에 활용되었다. 그 病理는 “外感內傷”이고 主治는 “頭痛 身熱”이므로 配合된 防風은 外感의 邪氣를 發散하는 作用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蔘蘇飲에 配合된 風藥은 紫蘇葉, 乾葛 등으로 蘇葉, 葛根, 前胡는 風寒을 表解하고 人蔘, 茯苓, 甘草는 勞傷을 補하고 陳皮, 半夏는 祛痰하고 桔梗, 枳殼은 利氣快膈하므로 益氣 解表 和胃 化痰하여 內외의 邪氣를 散한다⁹⁾. 本 處方은 東醫寶鑑에서 “辨內外傷證”의 “若顯外證多者 則是外感重而內傷輕 宜以發散爲急” 病症에 활용되었고 그 病理는 “感傷風寒 及內因七情”이며 主治는 “頭痛 發熱 咳嗽 痰盛 胸滿 潮熱”이다. 二陳湯과 桔梗枳殼湯을 基本方으로 한 處方이므로 配合된 風藥은 發散 作用과 함께 理氣化痰作用을 보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九味羌活湯에 配合된 風藥은 羌活, 防風, 白芷, 細辛 등으로 本 處方은 東醫寶鑑에서 “辨內外傷證”의 “若顯外證多者 則是外感重而內傷輕 宜以發散爲急” 病症에 활용되었으며 그 主治는 “不問四時 但有頭痛 骨節痛 發熱 惡寒 無汗 脈浮緊 宜用此以代麻黃爲穩當”이다. 또한 風藥이 君藥, 臣藥으로 대량 配合되고 종류도 다양한 것으로 미루어 配合된 風藥은 發散作用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藿香正氣散에 配合된 風藥은 紫蘇葉, 白芷 등으로 外感은 藿香, 蘇葉, 桔梗으로 和解하고 內傷은 平胃散과 二陳湯이 合方된 平陳湯으로 健脾燥濕和胃시킨다. 大服皮, 白茯苓, 厚朴은 消滿行水하고 白芷는 鎮痛效果가 있어 外感邪氣에 의한 頭身痛을 治한다⁶⁾. 本 處方은 東醫寶鑑에서 “不伏水土 病與內傷同”의 病症에 활용되었고 그 病理는 “傷寒陰證”이며 主治는 “頭痛身疼 如不分表裏證 以此

導引經絡 不致變動.”이다. 따라서 配合된 風藥은 發散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五豆湯에 配合된 風藥은 葛根으로 本 處方은 東醫寶鑑에서 “酒病治法”의 病症에 활용되었으며 그 主治는 “解酒毒 止消渴”이다. 그 病理가 “酒毒”이므로 配合된 葛根은 發散작용과 함께 生津止渴하는 效能이 있어 解酒毒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解酒化毒散에 配合된 風藥은 葛根이며 君藥은 滑石으로 性味는 甘·淡, 寒, 無毒하여 利水通淋, 滲濕, 清熱하는 효능이 있어 熱麻, 石麻, 尿熱澀痛, 暑濕煩渴, 濕熱水渴, 小便短小, 水腫 등의 病症을 치료한다¹⁰. 本 處方은 東醫寶鑑에서 “酒病治法”의 病症에 활용되었고 그 病理는 “傷酒”이며 主治는 “發熱煩渴 尿赤澀”이다. 清暑利濕의 基本方인 六一散을 基本方으로 한 處方이므로 配合된 葛根은 解酒毒 작용과 함께 清暑濕熱의 작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¹¹.

升麻葛根湯은 升麻를 써서 陽明의 風邪를 散하게 하고 胃中을 清陽하여 升하게 하며 解毒透疹하므로 君藥으로 삼았다. 葛根은 發散을 가볍게 하며 腠理를 열어주고 發汗케 한다. 또한 津液을 升하게 하여 熱을 제거하므로 臣藥으로 하였다. 甘草는 益氣解毒하므로 佐藥으로 삼고 아울러서 升麻, 葛根을 도와 透疹, 解毒清熱하게 한다. 또한 芍藥과 甘草의 相合은 養陰和中할 수가 있고, 汗出疹透와 氣陰을 다치지 않게 하므로 癩疹의 초기에 疹이 未發되거나 나오지 못하는 자에게 효과적이다¹². 결론적으로 酒傷에 대한 升麻葛根湯의 작용은 胃中의 熱과 血中의 熱을 淸解하는 것이다¹³. 本 處方에 配合된 風藥은 葛根, 升麻 등으로 本 處方은 東醫寶鑑에서 “酒病治法”의 病症에 활용되었다. 그 病理는 “傷酒”이며 主治는 “膈熱口瘡咽痛”이므로 配合된 葛根, 升麻는 解酒毒 작용과 함께 發表透疹하는 작용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萬盃不醉丹의 酒傷에 대한 작용은 葛根의 升陽解肌, 綠豆花, 菊花藥의 淸熱解毒, 葛花의 解酒毒

으로 인해 술이 깨는 것을 돕는 것이다¹⁴. 神仙不醉丹은 錢氏白朮散에서 藿香과 白朮을 去하고 葛花, 小豆花, 砂仁, 枸杞子, 天門冬, 澤瀉, 白鹽을 配合한 方劑로 볼 수 있다. 錢氏白朮散, 天門冬, 白鹽으로 津液을 보충하고 葛根, 葛花, 小豆花로 酒毒을 풀어주며 枸杞子로 肝을 補하고 砂仁으로 止嘔하고 肉桂로 溫中하며 澤瀉와 白鹽으로 酒毒을 배설케 한다. 酒毒을 배설하고 解毒시키고 위장장애를 개선하여 숙취에 활용할 수 있는 方劑이다¹¹. 酒傷에 대한 醉鄉寶屑의 작용은 葛根의 升陽解肌, 白朮, 砂仁의 溫胃, 丁香의 溫脾로 인해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¹⁴. 위에서 언급한 萬盃不醉丹, 神仙不醉丹, 醉鄉寶屑에 配合된 風藥은 모두 葛根으로 위 處方들은 東醫寶鑑에서 “醒酒令不醉”의 病症에 활용되었으므로 配合된 葛根은 發散작용과 함께 生津止渴하는 效能이 있어 解酒毒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三豆解醒湯의 葛根, 蒼朮은 땀을 나게 하는 藥이며 蒼朮, 澤瀉, 茯苓은 利尿시킨다. 神麴은 소화시키며 木瓜는 渴症을 가시게 하는 藥이고 半夏는 嘔逆에 쓰며 黑豆, 綠豆, 赤小豆는 解毒을 하며 穀氣도 되어서 補도 시킨다. 술로 인해 脾胃가 손상되어 脾陽虛가 지속되면 점차 腎陽도 虛해져 脾腎陽虛가 된다. 즉 氣化가 不足하여 氣津의 升降이 逆亂하고 內停하면 痰飲水濕이 되는데 이 때 本方을 활용할 수 있다¹⁴. 本 處方에 配合된 風藥은 葛根으로 本 處方은 東醫寶鑑에서 “醒酒令不醉”의 病症에 활용되었고 그 主治는 “治中酒發病 頭痛嘔吐 煩渴 善解酒毒 且多飲不醉. 因酒患消渴 尤宜服之”이다. 그 病理가 “中酒發病”이므로 配合된 葛根은 發散작용과 함께 生津止渴하는 效能이 있어 解酒毒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木香化滯湯에 配合된 風藥은 柴胡로 本 處方은 東醫寶鑑에서 “食傷消導之劑”의 病症에 활용되었고 그 病理는 “因憂食麪”이며 主治는 “心下痞滿作痛”을 主治한다. 肝鬱로 인해 脾胃의 升清降濁機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활용한 處方은

로, 柴胡가 疏肝작용을 하여 脾胃의 升降濁機能의 정상화를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二黃丸에 配合된 風藥은 升麻, 柴胡 등으로 本處方은 東醫寶鑑에서 “食傷消導之劑”의 病症에 활용되었고 그 病理는 “傷熱食”이며 主治는 “痞悶不安”이다. 따라서 黃芩, 黃連, 升麻, 柴胡, 枳實등 성질이 찬 약재를 응용하였으며 辛涼한 性을 가진 升麻와 柴胡는 脾胃內傷으로 인한 發熱을 散火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木香見睨丸에 配合된 風藥은 升麻, 柴胡 등으로 本處方은 東醫寶鑑에서 “食傷治法, 食傷消導之劑, 內傷飲食宜下”등 총 3개의 病症에 활용되었고 그 病理는 “傷生冷食”이며 主治는 “心腹滿痛”이다. 따라서 三稜, 神麴, 草豆蔻, 木香, 巴豆등 성질이 따뜻하고 行滯작용이 강한 약재를 응용하였는데, 辛涼한 性을 가진 升麻와 柴胡를 配合한 것은 따뜻한 약재에 대한 완화하기 위한 反佐의 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方劑에 配合된 風藥의 의미와 역할을 종합해보면 補中益氣湯, 補中益氣湯加味, 陶氏補中益氣湯, 加味益氣湯, 益胃升陽湯, 升陽順氣湯, 調中益氣湯, 升陽益胃湯, 黃芪人蔘湯, 參朮湯(參芪湯), 升陽補氣湯, 神聖復氣湯, 清神益氣湯 등 총 13개의 方劑에 細辛, 蔓荊子, 羌活, 柴胡, 藁本, 升麻, 防風, 葛根, 生薑 등의 風藥이 配合되어 升陽益氣의 목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두 번째로 陶氏補中益氣湯, 加味益氣湯, 神聖復氣湯, 防風通聖散加味, 十味和氣散, 蔘蘇飲, 九味羌活湯, 藿香正氣散 등 총 8개의 方劑에 柴胡, 升麻, 羌活, 防風, 細辛, 蔓荊子, 麻黃, 薄荷, 荊芥, 蔥白, 藁本, 紫蘇葉, 乾葛, 白芷 등의 風藥이 配合되어 發散의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補中益氣湯加味, 五豆湯, 解酒化毒散, 升麻葛根湯, 萬盃不醉丹, 神仙不醉丹, 醉鄉寶屑, 三豆解醒湯 등 총 8개의 方劑에 葛根, 升麻, 柴胡 등의 風藥이 配合되어 解酒毒의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세 번째로 黃芪人蔘湯, 清神益氣湯, 解酒化毒散, 防風通聖散加味 등 총 4개의 方劑에 升麻, 柴胡, 生薑, 防風, 葛根, 防風, 麻黃, 薄荷, 荊芥, 蔥白 등의 風藥이 配合되어 清暑濕熱의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네 번째로 木香化滯湯, 升陽順氣湯 등 총 2개의 方劑에 升麻, 柴胡 등의 風藥이 配合되어 疏肝의 목적으로 활용되었고, 二黃丸, 升陽順氣湯등 총 2方に 升麻, 柴胡등의 風藥이 配合되어 散火의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다섯 번째로 升麻葛根湯에 葛根, 升麻 등의 風藥이 配合되어 發表透疹의 목적으로 활용되었고, 蔘蘇飲에 紫蘇葉, 乾葛등의 風藥이 配合되어 理氣化痰의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木香見睨丸에 升麻, 柴胡 등의 風藥이 配合되어 溫性, 行滯 약물에 대한 완화의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3. 風藥의 종류별 配合된 빈도수 및 역할에 대한 調查

方劑에 配合된 風藥의 종류별 활용도 및 風藥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하여 風藥이 配合된 方劑를 病症別로 區分하고, 위 2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風藥의 종류별로 配合된 빈도수와 역할에 대하여 調查, 分析하였다(Table 3).

風藥의 종류 중 가장 많이 配合된 風藥은 柴胡로 15개의 處方에 配合되었으며 총 23회 활용되었다. 柴胡의 性味는 苦辛하고 微寒(涼¹⁵)하며 無毒하고 肝, 膽, 心包, 三焦, 胃, 大腸¹⁶에 歸經한다. 和解退熱, 疏肝解鬱, 升舉陽氣^{10,15} 하는 효능이 있어 主心腹腸胃中結氣, 飲食積聚, 寒熱邪氣, 推陳致新¹⁶. 治傷寒邪熱, 痰熱結實, 虛勞肌熱, 嘔吐心煩, 諸瘧寒熱, 頭眩目赤, 口苦耳聾, 婦人熱入血室, 胎前產後諸熱, 小兒痘疹, 五疳羸熱, 散十二經瘡疽血凝氣聚¹⁷, 去潮熱, 陽氣下陷, 平肝膽·三焦胞絡·相火¹⁸ 하는 主治작용이 있다.

柴胡가 配合된 15개 方劑 중 補中益氣湯, 益胃

升陽湯, 調中益氣湯, 升陽益氣湯, 升陽補氣湯, 加味益氣湯, 陶氏補中益氣湯, 神聖復氣湯, 黃芪人蔘湯, 參朮湯(參芪湯), 補中益氣湯加味, 升陽順氣湯 등 12개의 方劑에서 柴胡가 升陽益氣를 목적으로 가장 많이 配合되었다. 두 번째로 加味益氣湯, 陶氏補中益氣湯, 神聖復氣湯 등 3개의 方劑에서 柴胡가 升陽益氣와 함께 發散의 작용을 목적으로 配合되었다. 세 번째로 升陽順氣湯과 木香化滯湯 2개의 方劑에서는 疏肝작용을 목적으로 配合되었으며 升陽順氣湯과 二黃丸 2개의 方劑에서는 散火작용을 목적으로 配合되었다. 이외에 黃芪人蔘湯에서 柴胡가 升陽益氣와 함께 清暑濕熱작용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配合되었고 또한 木香見睨丸에서는 溫性, 行滯 약물을 완화하기 위한 反佐의 목적으로 配合된 것으로 생각된다.

病症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柴胡는 木香見睨丸, 木香化滯湯, 二黃丸, 補中益氣湯이 활용된 食傷의 病症과 補中益氣湯, 加味益氣湯, 陶氏補中益氣湯, 益胃升陽湯, 升陽順氣湯, 調中益氣湯, 黃芪人蔘湯, 升陽益氣湯이 활용된 勞倦傷 病症의 處方에 가장 많이 配合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柴胡는 食傷과 勞倦傷의 病症에서 주로 升陽益氣와 發散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配合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 疏肝, 散火, 清暑濕熱작용이 필요할 경우 柴胡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많이 配合된 風藥은 升麻로 14개의 處方에 配合되었으며 총 22회 활용되었다. 升麻의 性味는 辛, 甘, 微寒, 無毒하고, 歸經은 肺, 脾, 大腸, 胃經에 작용한다.^{19,20)} 升麻의 效能은 發汗解熱, 發表, 升陽, 透疹, 清熱解毒, 行瘀止痛하므로 發熱, 頭暈, 出血, 脫肛, 虛證便秘, 癰閉, 子宮下垂 등의 症을 치료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泄痢, 齒痛, 皮膚 및 外科疾患에 응용해 왔다²¹⁾.

升麻가 配合된 14개의 處方 중 補中益氣湯, 益胃升陽湯, 調中益氣湯, 升陽補氣湯, 清神益氣湯, 黃芪人蔘湯, 參朮湯(參芪湯), 加味益氣湯, 神聖復氣湯, 補中益氣湯加味, 升陽順氣湯 등 11개의 方劑에

서 升麻가 升陽益氣를 목적으로 가장 많이 配合되었다. 두 번째로 清神益氣湯, 黃芪人蔘湯 2개의 方劑에서 升麻가 升陽益氣와 함께 清暑濕熱 작용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配合되고 加味益氣湯, 神聖復氣湯 등 총 2개의 方劑에서 升麻가 升陽益氣와 함께 發散작용을 목적으로 配合되었으며 升陽順氣湯, 二黃丸 2개의 方劑에서 散火작용을 목적으로 配合되었다. 이외에 升麻葛根湯에서 解酒毒작용과 發表透疹작용을 목적으로 配合되었고 升陽順氣湯에서 疏肝작용, 木香見睨丸에서 溫性, 行滯 약물을 완화하기 위한 反佐의 목적으로 升麻가 配合되었다.

病症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升麻는 木香見睨丸, 二黃丸, 補中益氣湯이 활용된 食傷의 病症과 補中益氣湯, 加味益氣湯, 益胃升陽湯, 升陽順氣湯, 調中益氣湯, 黃芪人蔘湯, 清神益氣湯이 활용된 勞倦傷의 病症 處方에 가장 많이 配合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升麻는 食傷과 勞倦傷의 病症에서 주로 升陽益氣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配合되었으며 이외에 清暑濕熱, 發散, 散火작용이 필요할 경우 升麻를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로 많이 配合된 風藥은 防風으로 9개의 處方에 配合되었으며 총 9회 활용되었다. 防風의 性味는 辛, 甘, 微溫, 無毒하고 歸經은 膀胱, 肝, 脾經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效能은 祛風解表, 勝濕止痛, 祛風止癢 등의 작용이 있어, 外感風寒, 風熱表證, 風疹疥癩證, 風寒濕痺證, 頭痛身痛, 癱瘓, 破傷風, 骨節疼痛, 煩滿脇痛, 推搗瘕瘕에 활용되고 있다^{18,22,23)}.

9개의 處方 중 升陽益氣湯, 升陽補氣湯, 陶氏補中益氣湯, 加味益氣湯, 神聖復氣湯, 清神益氣湯 등 6개의 方劑에서 防風이 升陽益氣의 작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많이 配合되었으며 또한, 陶氏補中益氣湯, 加味益氣湯, 神聖復氣湯, 防風通聖散加味, 十味和解散, 九味羌活湯 등 6개의 方劑에서 發散작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많이 配合되었다. 다음으로 清神益氣湯, 防風通聖散加味 2

方에서 防風이 淸暑濕熱작용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配合되었다.

病症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防風은 陶氏補中益氣湯, 加味益氣湯, 十味和解散, 九味羌活湯, 升陽益胃湯, 淸神益氣湯이 활용된 勞倦傷 病症의 處方에 가장 많이 配合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防風은 勞倦傷에서 升陽益氣, 發散시키기 위한 목적과 淸暑濕熱작용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防風과 함께 세 번째로 많이 配合된 風藥은 葛根으로 葛根은 9개의 處方에 配合되어 총 9회 활용되었다. 葛根의 性은 平하고 味는 甘辛하며 肺, 脾, 胃經에 작용한다. 葛根의 效能은 發汗解肌, 發表透疹, 生津止渴, 解毒排膿, 升陽止瀉 등의 작용이 있어, 臨床적으로는 感冒, 嘔吐, 癩疹, 消渴, 泄瀉, 痢疾, 狹心症, 高血壓, 偏頭痛, 網膜動脈閉塞症, 突發性 耳聾 등의 病症에 많이 활용되어왔다²⁴⁻⁷⁾.

葛根이 配合된 9개의 處方 중 補中益氣湯加味, 五豆湯, 萬盃不醉丹, 神仙不醉丹, 醉鄉寶屑, 三豆解醒湯, 解酒化毒散, 升麻葛根湯 등 총 8개의 方劑에서 葛根이 解酒毒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많이 配合되었으며, 이외에 解酒化毒散에서 淸暑濕熱작용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升麻葛根湯에서는 發表透疹하기 위한 목적으로, 蓼蘇飲에서 發散작용과 理氣化痰작용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葛根이 配合되었다.

病症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葛根은 補中益氣湯加味, 五豆湯, 解酒化毒散, 升麻葛根湯, 萬盃不醉丹, 神仙不醉丹, 醉鄉寶屑, 三豆解醒湯이 활용된 酒傷 病症의 處方에서 가장 많이 配合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葛根은 酒傷에서 解酒毒하기 위한 목적과 이외에 淸暑濕熱, 發表透疹, 理氣化痰, 發散하는 작용이 필요할 경우에 응용할 수 있겠다.

네 번째로 많이 配合된 風藥은 羌活로 6개의 處方에 配合되어 총 6회 활용되었다. 羌活의 性味

는 辛, 溫, 無毒하고 歸經은 膀胱, 肝, 腎經에 작용한다. 風濕相搏, 頭痛, 一身肢節疼痛, 風濕痺痛 및 上半身이 風寒濕邪에 外感時에 風濕을 제거하여 止痛케 하는 효용이 있어서 祛濕止痛藥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²⁸⁾.

羌活에 配合된 6개의 處方 중 升陽益氣湯, 升陽補氣湯, 陶氏補中益氣湯, 加味益氣湯, 神聖復氣湯 등 5개의 方劑에서 羌活이 升陽益氣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많이 配合되었으며 다음으로 陶氏補中益氣湯, 加味益氣湯, 神聖復氣湯, 九味羌活湯 등 4개의 方劑에서 羌活이 發散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配合되었다.

病症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羌活은 陶氏補中益氣湯, 加味益氣湯, 九味羌活湯, 升陽益氣湯이 활용된 勞倦傷 病症의 處方에 配合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羌活은 勞倦傷에서 升陽益氣하기 위한 목적과 發散하기 위한 목적으로 配合됨을 알 수 있었다.

다섯 번째로 많이 配合된 風藥은 細辛으로 3개의 處方에 配合되었으며 총 3회 활용되었다. 細辛의 性味는 辛, 溫, 無毒하고, 歸經은 肺, 腎에 작용하며 細辛의 효능은 發散解表, 祛風止痛, 溫肺化痰, 溫經通絡, 行水通竅등으로 알려져 있다. 臨床적으로는 風冷頭痛, 鼻淵, 齒痛, 明目, 利九竅, 頭痛, 痰飲, 咳逆上氣, 百節拘攣, 風濕痺痛 및 中風으로 因한 人事不省 등에 활용하고 있다^{29,30,31)}.

細辛이 配合된 3개의 處方 중 陶氏補中益氣湯, 神聖復氣湯, 九味羌活湯 등 3方에서 細辛이 發散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많이 配合되었으며 다음으로 陶氏補中益氣湯, 神聖復氣湯 등 2개의 方劑에서 細辛이 升陽益氣하기 위한 목적으로 配合되었다.

病症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細辛은 陶氏補中益氣湯, 九味羌活湯이 활용된 勞倦傷의 病症의 處方에 가장 많이 配合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細辛은 勞倦傷에서 發散작용의 목적과

升陽益氣의 목적으로配合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섯 번째로 많이配合된 風藥은 紫蘇葉으로 2개의 處方에配合되어 총 2회 활용되었다. 紫蘇葉의 性은 溫, 無毒, 或 平하고 味는 辛 혹은 甘하다. 歸經은 肺, 脾, (心, 膀胱, 大腸, 小腸)이다. 紫蘇葉의 效能은 解熱, 發汗, 止咳祛痰平喘, 行氣, 健胃, 解毒, 安胎 작용이 있다^{18,32,33}).

紫蘇葉이配合된 2개의 처방인 藿香正氣散, 參蘇飲에서 紫蘇葉은 모두 發散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많이配合되었으며, 다음으로 參蘇飲에서 理氣化痰작용을 보조하기 위해서配合되었다.

病症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紫蘇葉은 參蘇飲이 활용된 勞倦傷 病症과 藿香正氣散이 활용된 不伏水土病與內傷同 病症의 處方에配合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紫蘇葉은 勞倦傷과 不伏水土病與內傷同 病症에서 發散시키기 위한 목적과 理氣化痰작용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配合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紫蘇葉과 함께 여섯 번째로 많이配合된 風藥은 白芷로 2개의 處方에配合되어 총 2회 활용되었다. 白芷의 性味는 辛, 溫, 無毒하고 肺, 脾, 胃로 歸經하며, 祛風解表, 消腫止痛, 通鼻止帶의 효능이 있어 風寒感冒로 인한 頭痛, 眉稜骨痛, 牙痛, 頭風 등의 症과, 瘡瘍腫痛, 鼻淵, 鼻塞, 白帶下 등의 치료에 활용한다³⁴).

白芷가配合된 2개의 處方인 九味羌活湯, 藿香正氣散에서 白芷는 모두 發散시키기 위한 목적으로配合되었다.

病症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白芷는 九味羌活湯이 활용된 勞倦傷 病症과 藿香正氣散이 활용된 不伏水土病與內傷同 病症의 處方에配合되었다.

따라서 白芷는 勞倦傷과 不伏水土病與內傷同 病症에서 發散하기 위한 목적으로配合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麻黃, 薄荷, 蔥白, 荊芥는 모두 酒病治法の 病症에 활용된 防風通聖散加味에서 發散과 清暑利濕작용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配合되었고, 蔓荊子,

藁本是 內傷病始爲熱中終爲寒中の 病症에 활용한 神聖復氣湯에서 升陽益氣와 發散시키기 위한 목적으로配合되었으며, 生薑은 勞倦傷治法の 病症에 활용한 清神益氣湯에서 升陽益氣와 清暑濕熱작용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配合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4. 風藥의 종류별配合에 관한 調査

風藥이配合된 方劑 중 2가지 이상의 風藥이 함께配合된 의미와 역할을 파악하기 위하여 東醫寶鑑 內傷門에配合된 風藥의 종류별로 함께配合된 風藥의 종류와 빈도수에 대하여 Table 4와 같이 調査, 分析하였다.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인 것은 升麻와 柴胡가 함께配合된 경우로 補中益氣湯, 益胃升陽湯, 升陽順氣湯, 調中益氣湯, 黃芪人蔘湯, 參朮湯(參芪湯), 木香見睨丸, 二黃丸 등 8개의 處方이 조사되었다. 柴胡와 升麻는 陽氣를 升擧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氣虛下陷으로 인한 久瀉, 脫肛, 子宮下垂, 脫腸 등의 證을 다스리는데 人蔘, 黃芪등의 補氣藥物을配合함으로써 升陽擧陷의 效를 더욱 강력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만 柴胡는 少陽半表半裏의 邪를 宣散하며 肝膽의 抑鬱之氣를 疏解한다. 그러나 升麻는 陽明飢餓之邪를 宣發하여 脾胃의 清陽之氣를 升擧하므로 이를 구별하여야 한다³⁵).

다음으로 많은 빈도수를 보인 것은 升麻, 柴胡, 羌活, 防風이 함께配合된 경우로 加味益氣湯, 升陽補氣湯 등 총 2개의 處方에서 함께配合되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柴胡와 升麻는 陽氣를 升擧하는 작용이 있고 羌活·防風은 모두 升散을 주하므로 소량으로 쓸 때에는 脾氣를 升擧하는 작용이 있어 脾虛下陷의 症에도 쓸 수 있다. 羌活·防風이 健脾藥과配合될 때에는 이 藥對가 健脾藥의 藥力이 발휘되도록 도우므로 補脾升陽의 效를 거둘 수 있고 동시에 그 辛散한 性을 이용하여 補藥의 過度로 인한 滋膩壅滯를 방지할 수도 있다³⁶).

이외에 升麻, 柴胡, 葛根은 補中益氣湯加味에

함께 配合되었고, 升麻, 柴胡, 羌活, 防風, 細辛, 藁本, 蔓荊子是 神聖復氣湯에 함께 配合되었으며, 羌活, 防風, 柴胡는 升陽益胃湯에 함께 配合되었다. 羌活, 防風, 柴胡, 細辛은 陶氏補中益氣湯에 함께 配合되었고, 羌活, 防風, 白芷, 細辛은 九味羌活湯에 함께 配合되었으며, 升麻, 葛根은 升麻葛根湯에 함께 配合되었다. 升麻, 防風, 生薑은 淸神益氣湯에, 紫蘇葉, 白芷는 藿香正氣散에 함께 配合되었고, 紫蘇葉, 葛根은 參蘇飲에 함께 配合되었으며, 荊芥, 防風, 麻黃, 薄荷, 蔥白은 防風通聖散加味에 함께 配合되었다.

V. 결 론

東醫寶鑑 內傷門 中 風藥이 配合된 總 28개 方劑에 대한 治療領域, 病症, 病理, 方劑構成, 配合된 風藥의 종류 및 빈도수, 2가지 이상 함께 配合된 風藥에 대한 문헌적 자료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1. 각 方劑의 처방구성 및 基本方들을 調査, 分析한 결과 補中益氣湯, 二陳湯, 二妙散, 六一散, 桔梗枳殼湯등을 위주로 加味한 處方에 柴胡, 升麻, 防風, 葛根, 羌活, 細辛, 紫蘇葉, 白芷, 麻黃, 生薑, 薄荷, 荊芥, 蔓荊子, 藁本, 蔥白등 總 15종류의 風藥이 配合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東醫寶鑑 內傷門에 收錄된 方劑 中 風藥이 配合된 方劑 總 28方에서 風藥이 配合된 의미와 역할을 調査, 分析한 결과 13개 方劑에서 升陽益氣하는 목적으로 가장 많이 配合되었으며, 다음으로 8개 方劑에서 發散작용과 解酒毒하는 목적으로, 4개 方劑에서 淸暑濕熱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2개 方劑에서 疏肝, 散火의 목적으로, 總 1개의 方劑에서 發表透疹, 溫性, 行滯 藥물을 完化하기 위한 反佐, 理氣化痰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風藥이 配合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3. 東醫寶鑑 內傷門에 收錄된 方劑에 配合된 風藥의 종류별 배합 빈도수 및 역할을 調査, 分析한 결과 柴胡가 28%, 升麻는 27%로 主로 升陽益氣 作用을, 防風과 葛根은 11%로 防風은 主로 升陽益氣, 發散 作用을, 葛根은 解酒毒 作用을, 羌活은 7%로 主로 升陽益氣 作用을, 細辛은 3%로 主로 發散 作用을, 紫蘇葉과 白芷는 2%로 主로 發散 作用을 목적으로 配合되어 活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東醫寶鑑 內傷門에 收錄된 方劑에 配合된 風藥의 종류별 배합에 관하여 調査, 分析한 결과 升麻·柴胡가 40%, 升麻·柴胡·羌活·防風이 10%, 升麻·柴胡·葛根, 升麻·柴胡·羌活·防風·細辛·藁本·蔓荊子, 羌活·防風·柴胡, 羌活·防風·柴胡·細辛, 羌活·防風·白芷·細辛, 升麻·葛根, 升麻·防風, 紫蘇葉·白芷·紫蘇葉·葛根, 荊芥·防風·麻黃·薄荷·蔥白이 각각 5%의 비율로 活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風藥은 內傷疾患에 升陽益氣, 發散, 解酒毒, 淸暑濕熱, 疏肝, 散火, 發表透疹, 理氣化痰, 溫性, 行滯 藥물을 完化하기 위한 反佐등 다양한 作用을 목적으로 活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風藥 中 가장 活用도가 높은 柴胡와 升麻를 중심으로 임상시험과 실험실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검증을 한다면 食생활의 변화, 신체활동의 부족, 스트레스 등의 影響으로 쉽게 기능장애가 發生하는 現代인의 內傷疾患을 治療하고 예방하는데 있어 더 넓은 治療영역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8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됨

참고문헌

1. 董振華. 李東垣對脾胃學說的貢獻. 中國中醫藥. 2005:11(19).
2. 主編 張年順 等. 李東垣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3. 張勝春. 淺議李東垣脾虛陰火論. 南京中醫藥大學學報. 2000:16(3).
4. 楊威. 〈脾胃論〉方劑配伍規律爭議.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04:10:10.
5. 朱榮承. 東醫寶鑑에 收錄된 韓藥物에 대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1990:11(2):205-11.
6. 尹用甲. 東醫方劑와 處方解說. 서울:도서출판 醫聖堂. 2002:72, 82, 93, 95, 102, 119, 138, 140, 142, 180, 355, 381, 426, 465, 485, 496, 497, 498, 504, 505, 880, 881.
7. 中醫大辭典.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3:274-5.
8. 안덕균, 이상인, 신민교. 漢藥臨床應用. 서울:성보사. 1982:358-9.
9. 黃度淵原著 辛民教 永林社 編輯部 共編著. 新增方藥合編. 서울:도서출판 永林社. 2002:198, 259
10. 辛民教. 臨床本草學. 서울:도서출판 영림사. 2002:354-5, 672.
11. 尹用甲. 新東醫方劑2223. 서울:도서출판 鼎談. 2006:2313.
12. 許濟群 王綿之. 中醫 方劑學. 陰陽脈診出版社. 1991:89.
13. 李載熙. 漢方診療要方. 서울:醫學研究社. 1983:463.
14. 임은미. 東醫寶鑑의 酒傷에 대한 考察.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2007.
15. 中國本草圖鑑. 驪江出版社. 1994:742.
16. 王筠默外. 神農本草經校證. 서울:醫聖堂. 1988:165.
17. 楊東喜. 本草秘要解釋. 國興出版社. 1988:97-9.
18. 申佶求. 申氏本草學. 壽文社. 1988:221, 228-36, 269.
19. 國家中醫藥管理局 中華本草編委會. 中華本草.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8:508-9.
20. 安德均. 韓國本草圖鑑. 서울:教學社. 2000:24.
21. 뇌재권 外 共譯. 中醫臨床中藥學.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8:347-55.
22. 王浴生. 中藥藥理與應用.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3:461.
23. 康秉秀. 臨床配合本草學. 서울:永林社. 1994:460.
24. 國家中醫藥管理局 中華本草編委會. 中華本草.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8:905.
25.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2:1277.
26. 李梴. 編註醫學入門 內集卷2 本草. 서울:大星文化社. 1986:108.
27. 鄭普燮. 圖解 鄉藥(生藥)大辭典. 서울:영림사. 1990:704.
28. 陣在仁. 圖說 漢方醫學大辭典(中國藥學大典). 講談社. 1982:62.
29. 新文豐出版公司 編輯. 新編 中藥大辭典. 臺北:新文豐出版公司. 1982:1811-5.
30. 鄭虎占 外. 中藥現代研究與應用 第四卷. 北京:學苑出版社. 1998:3052-7.
31. 苗明三 主編. 法定 中藥藥理與臨床. 西安:世界圖書出版公司. 1998:799-802.
32. 전국한의과대학본초학편찬위원회. 본초학. 서울:영림사. 2004:158.
33. 주영승. 운곡본초학(상). 서울:서림재. 2004:32.
34. 金俊錡譯. 國譯本草問答. 서울:大星文化社. 1994:66, 72, 128
35. 辛民教編著. 原色臨床本草學. 서울:도서출판 南山堂. 1986:541.
36. 정유화저 노영호역. 藥對論. 一中社. 2003:51.